

치 사

친애하는 한중일 불자 여러분!

유서 깊은 절강성 설두사에서 제1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고 유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곳 절강성은 한국불교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광종대왕은 36분의 스님을 절강성에 주석한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에게 보내 수학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고려로 귀국하면서 법안종(法眼宗)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선종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류대회가 열리는 설두사 역시 한국불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설두사에 주석했던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선사의 『송고백칙(頌古百則)』을 모태로 하는 『벽암록(碧巖錄)』이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류대회의 주제인 ‘천 년의 법맥을 잇자’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설두사를 향한 제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작년 제18차 교류대회에서 우리는 서로간의 유대를 확인하고 현대와 미래사회를 위한 불자의 실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식을 갖는 ‘한중일 황금유대기념비’는 그러한 우리들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소까 왕의 석주(石柱)가 불멸(不滅)하는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것처럼, ‘한중일 황금유대기념비’는 동북아시아 삼국 불자들의 영원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상황도 우리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불교 종파가 출현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일불(一佛) 제자’라는 공통분

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바다가 짠 맛으로 한 맛인 것처럼, 이 법과 율은 해탈의 맛으로 한 맛이다(『증지부(增支部)』)”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마음에 새긴다면 사소한 차이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시연될 다도시연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의 문화가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음을 알게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장점을 융화하면 더 훌륭한 내용물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만이 이번 대회의 주제인 ‘천 년의 법맥’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회를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중국불교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고마운 관계임을 감사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